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업종일등 ESG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80% 수준을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ESG를 고려하는 책임 투자: 기업의 재무적 성과 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인 환경문제(Environmental), 사회적 책임(Social), 기업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종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투자합니다.

- 리스크관리팀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71억 원

-모투자신탁 75억 원

펀드유형 주식형, 종류형, 모자형
-주식 편입비 : 60% 이상
(2015년 12월 11일 모자형 전환)

설정일

(운용펀드 : 2005년 01월 18일)

- 클래스 A : 2014년 08월 05일
- 클래스 A-E : 2014년 08월 08일
- 클래스 C : 2010년 07월 26일
- 클래스 C-E : 2013년 08월 19일
- 클래스 C2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C3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C4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C5 : 2010년 10월 25일

벤치마크 KOSPI 100%

신탁업자 국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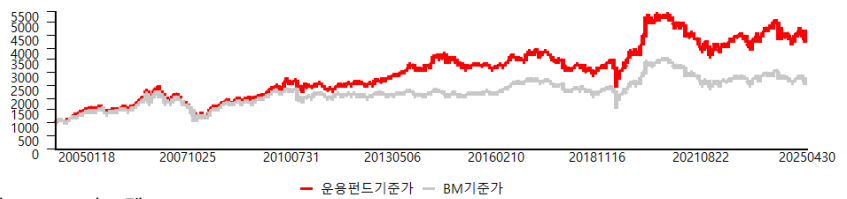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4.34%	3.80%	3.48%	-2.40%	9.20%	4.38%	52.76%	363.49%
클래스 A	4.20%	3.36%	2.62%	-4.03%	5.56%	-0.85%	40.36%	22.60%
클래스 A-E	4.24%	3.48%	2.85%	-3.61%	6.51%	0.51%	43.52%	29.12%
클래스 C	4.15%	3.21%	2.31%	-4.61%	4.30%	-2.61%	36.23%	65.97%
클래스 C-E	4.19%	3.34%	2.57%	-4.13%	5.34%	-1.15%	39.67%	45.62%
클래스 C2	4.16%	3.24%	2.38%	-4.48%	4.60%	-2.21%	37.45%	55.65%
클래스 C3	4.17%	3.28%	2.46%	-4.31%	4.89%	-1.20%	-	-17.52%
클래스 C4	4.20%	3.32%	2.52%	-4.24%	6.30%	-	-	16.88%
클래스 C5	4.19%	3.34%	2.57%	-4.13%	5.34%	-1.15%	39.68%	63.80%
벤치마크	3.04%	1.56%	0.02%	-5.03%	2.20%	-5.14%	31.27%	176.97%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판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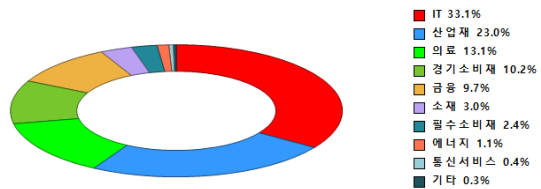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04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04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16.2	현대모비스	운송장비.부품	2.8
SK하이닉스	전기.전자	7.1	HD현대중공업	운송장비.부품	2.3
LG에너지솔루션	전기.전자	3.9	현대로템	운송장비.부품	2.3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	3.9	현대차	운송장비.부품	2.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운송장비.부품	2.8	파마리서치	제약	2.1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적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705% (판매 0.9%)
- 클래스 A-E : 총 연 1.255% (판매 0.45%)
- 클래스 C : 총 연 2.305% (판매 1.5%)
- 클래스 C-E : 총 연 1.805% (판매 1%)
- 클래스 C2 : 총 연 2.175% (판매 1.37%)
- 클래스 C3 : 총 연 2.055% (판매 1.25%)
- 클래스 C4 : 총 연 1.935% (판매 1.13%)
- 클래스 C5 : 총 연 1.805% (판매 1%)

(공통사항)

운용 0.75%, 신탁 0.04%,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 납입금액의 1.0% 이내
- 클래스A-E : 납입금액의 0.5% 이내

한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4월 KOSPI는 전월 대비 3.04% 상승한 2,556.61pt, KOSDAQ은 6.60% 상승한 717.24pt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발표로 글로벌 시장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며 한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90일 관세 유예 조치 발표 이후 안도감과 함께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증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며 저점에서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 기대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이 더해지며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조선, 기계, 화장품 업종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자동차, 전자부품, 정유 업종은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월 대비 1.91% 하락한 1,438.50원을 기록하며 원화 강세를 나타냈고, WTI 기준 국제유가는 전월 대비 18.56% 하락한 58.2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동기간 기관투자자는 3조 5,472억 원, 개인투자자는 5조 2,497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투자자는 10조 1,26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화장품 업종에서의 배분 효과와 전자부품 및 의약품업종에서의 종목선택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유틸리티, 보험, 철강 업종의 종목 선택 효과가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종목단에서는 의료 관광 인바운드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와 리튬관 화장품의 수출 지역 확대로 성장 가시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파마리서치와 생산성 향상으로 조기도 발생하여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 HD현대미포 그리고 중동, 아시아, 유럽항 수출 모멘텀 지속으로 Q-Q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반면, 조선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이 적어 미보유하고 있는 HD한국조선해양과 에너지 가격과 환율 하향 안정화 지속으로 증익 가시성이 높아지는 한국전력을 시장 비중보다 낮게 보유한 것이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매대는 실적 상향 조정이 둔화되는 반도체와 의약품업종에서 일부 차익실현하여 실적상향 조정이 가속화되는 기계 (방산), 조선 업종과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화장품 업종의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5월 국내 주식시장은 글로벌 무역 분쟁 우려가 점차 완화되며 안정적인 흐름을 모색할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관세 협상 의향이 확인되면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는 다소 정점을 지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중국과의 문화관광 교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업종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연간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이 멈추며 업황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는 주요 악재를 상당 부분 반영한 상태에서 물가나 고용 지표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경우, 시장 변동성을 점진적으로 낮춰가며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으로 판단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인 관세 정책 충격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국제 교역 질서 재편을 통한 패권 유지를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이익 극대화보다 안보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며 이에 동반될 후폭풍을 금융시장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아직은 견조해 보이지만 고용과 물가, 경기 악화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관세 영향을 시차를 두고 반영할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감안할 때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는 시장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또 다른 변수인 중국과의 관세 협상의 진전도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고 인내심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정부 감안 시, 시장에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관세 영향에 따른 상대적 피해는 대체재를 찾기 더 어려운 미국 소비자들에게 더 클 것이고, 중국은 확장적 재정정책 여력과 고용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금리인하 사이클과 관세 협상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을 가정하고 하반기를 대비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매크로 이슈 영향이 제한적인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방산을 중심으로 최근 주가 조정으로 가격 메리트가 상승한 데이터센터 value chain (전력기기, 원전 등) 에서 재차 비중 확대 기회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럽과 중국의 소비 부양책의 수혜주로서 화장품을 주목하고 있으며, 대형 아티스트들의 컴백으로 하반기 실적 모멘텀 가시성이 높은 엔터 업종 비중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글로벌 교역량 변화에 따라 수출주의 실적 하향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둔 차익실현으로 성과의 누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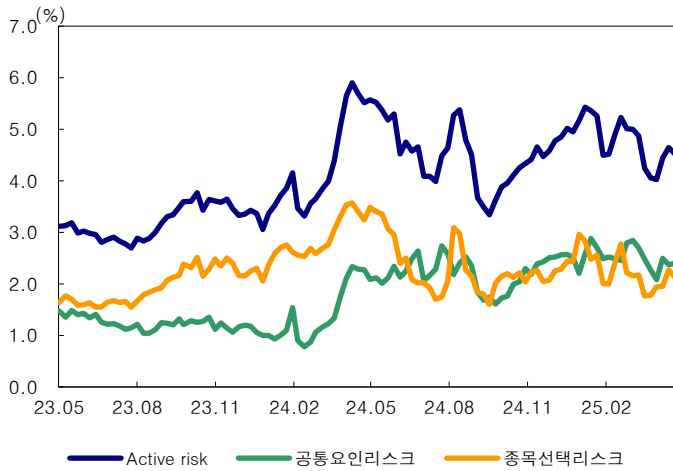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판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시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리스크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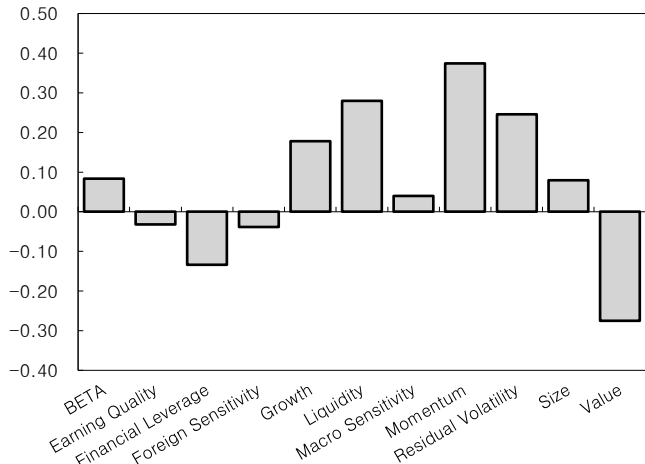
	2025-04-30	2025-03-31
Active Risk ¹	4.49%	4.08%
공통요인 리스크 기여도 ²	2.27%	2.30%
- 스타일 리스크 기여도	1.60%	1.57%
- 섹터 리스크 기여도	0.67%	0.73%
종목선택 리스크 기여도 ³	2.22%	1.78%
베타	0.92	0.92

1. Active Risk는 벤치마크 대비 펀드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으로 공통요인 리스크와 종목선택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Active Risk 수치가 높을수록 펀드가 벤치마크에 비해 적극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통요인 리스크는 스타일 및 업종 리스크와 공통요인간의 상관관계로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 합니다.
3. 종목선택 리스크는 경영성과, 노사분규 등과 같은 개별기업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공통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기업 고유의 리스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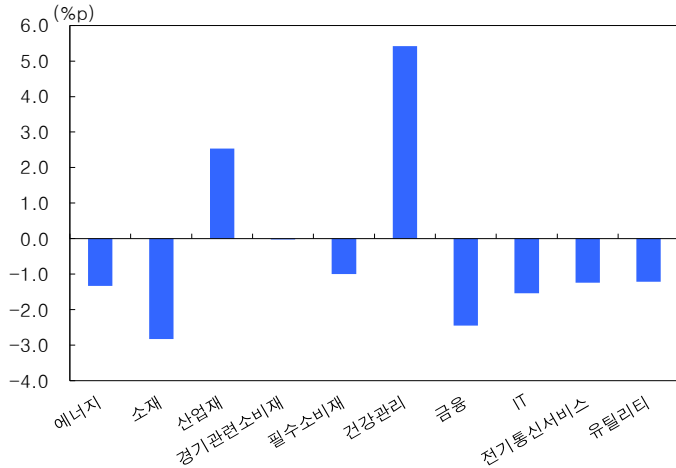
<Active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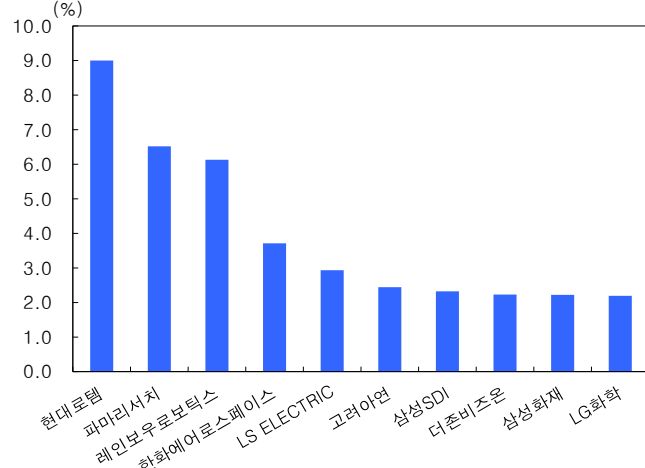
<벤치마크 대비 스타일 비중차>



<벤치마크 대비 섹터별 비중차>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



분석 결과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는 3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4월말 현재, 업종일등ESG증권모[주식] 펀드의 Active Risk는 4.49%로 전월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 종목수는 전월대비 8개 종목 감소하여, 86개 종목을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성향은 변동이 없었으나, 벤치마크 대비 '전기통신서비스', 'IT' 등의 비중 차이는 증가하였고, '필수소비재', '경기관련소비재' 등의 비중 차이는 감소하였습니다.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3월말 기준으로는 '현대로템'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상승하였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하락하였습니다.
- ▶ 종목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는 전월대비 증가하였고, 종목집중 위험은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 동펀드는 'Value'보다는 'Momentum'이 높은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